



남원소방서, 주택용 소화기 더블보상 실시

남원소방서는 지난 8일, 주택 화재를 초기에 소화기로 진압해 화재로의 확산을 막은 수지여성용소방대 이윤희(53) 부대장에게 소방서장 표창과 함께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보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남철희 소방서장은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기여한 시민들을 적극 발굴해 포상하고, 화재 초기 소화기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농기센터, 명품농업대학 입학식 개최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연주)는 지난 6일, 2026학년도 남원명품농업대학 입학식을 개최하고 오는 11월까지 약 9개월간 본격적인 학사 일정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날 입학식에는 교육생 134명과 관계자 19명이 참석해 지역농업의 혁신을 이끌 정예 농업인으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했으며, 올해로 제17기를 맞은 농업대학은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대응하고 지역농업을 이끌어갈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과정은 발효식품반, 복숭아반, 도시농부반, 스마트팜 토마토반, 청년스마트팜 특별반(기초반, 심화반) 등 총 6개 반으로 편성됐다. 특히 '청년스마트팜 특별반'을 기초와 심화 단계로 세분화해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소방서, 전기차 사고 대응력 향상 교육

남원소방서는 최근 늘어나는 전기차 보급에 발맞춰 화재 및 사고 발생 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 교육을 지난 6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속 전문가를 직접 초빙해 진행하며, 현장대응단 및 119안전센터, 119구조대 등 현장 대응들이 참여했다.

이날 교육은 △전기차 구조와 작동 원리 △배터리 특성 및 화재 시 위험 요소 등 이론 교육을 시작으로 △전기차 감전 대응 요령 △간접구조를 위한 안전한 견인 방법 △사고 발생 시 탑승자 구조 절차 등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전문가의 지도 아래 남원소방서 앞 공터에 실제 전기차량을 배치하여 훈련을 전개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 평화동 '청소년 사랑의 밥차' 개소 성황

청소년 60명 · 주민 150명 등 몰리며 큰 관심... 매주 금요일 오후 밥차 운영 예정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청소년과 주민을 위한 따뜻한 나눔의 공간이 마련됐다.

사단법인 한국아름다운공동체(이사장 두재균 전 전북대학교 총장)는 3월 6일 저녁 평화동 온평과 희망광장에서 '청소년 사랑의 밥차'를 개소하고 첫 운영을 시작했다. 이날 현장에는 청소년 60명과 주민 150명 등 약 200명이 몰리며 큰 관심을 보였다.

행사에는 우범기 전주시 시장과 이남숙 시의원, 이금안 평화1동장 등 지역 인사들이 참석해 밥차의 출발을 축하했다. 또 밥차 운영 준비 과정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한 9명에게 감사패가 전달됐다.

'청소년 사랑의 밥차'의 핵심 원칙은 '선별 없는 개방'이다. 나춘균 자원위원장은 "나인 효과가 생기면 정착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문턱을 넘지 못한다"며 "동네 아이라면 누구든 배고프면 와서 먹고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운영 시간을 금요일 오후로 정한 것도 같은 취지다. 주말이 이어져 학업 부담이 비교적 적고, 학생들이 PC방 대신 안전하게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다. 기본 메뉴는 김밥과 떡볶이, 라면, 어묵 등이며, 후원자들의 참여로 닭강정이나 짜장면, 삼겹살 파티 등 특별 메뉴도 매주 제공될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 작은 나눔이 전주시 전체로 퍼져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아름다운공동체는 이번 사업을 평화동에서 안정적으로 정착시킨 뒤 전주시 전역은 물론 전북과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두재균 이사장은 "병원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해 청소년 사랑의 밥차, 아름다운 교육공동체상, 교직원 힐링치유센터 등 세 가지 축을 통해 지역 교육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두 이사장은 또 평화동 일대 상인들을 직접 찾아 후원을 요청하고, 등굣길 안내장 배포와 현수막 게시 등 현장 홍보에도 적극 나서며 사업 정착에 힘을 쏟고 있다. /오상근 기자



강진면 주민자치위원회, 올해 주요 사업계획 논의

강진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서병준)는 지난 5일 강진면사무소 회의실에서 2026년도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방향과 주요 사업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주민자치 프로그램 선정 △주민자치 프로그램 감사비 배분 기준 마련 △주민자치위원회 자체사업 추진 방향 설정 등을 주요 안건으로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위원회는 그동안 주민들의 참여율과 만족도가 높았던 게이트볼, 스포츠댄스, 농악, 드림 프로그램을 2026년도에 지속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기존 프로그램 중 웰스는 제외하고 건강체조 프로그램을 새롭게 포함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위원회는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비 배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한 자체 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주민자치 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군산시 드림스타트, '듀얼케어 부모성장 프로그램' 운영 맞손

그린맘심리발달연구소와 업무협약... 취약계층 가정 부모 역량 강화 지원

군산시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 아동 가정의 부모 역량 강화를 위해 9일 그린맘심리발달연구소(대표 김정익)와 '듀얼케어 부모성장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드림스타트 대상 가정을 위해 부모교육과 개별상담을 병행하여 부모의 양육 역량을 강화하고 건강한 가족 기능 회복을 지원하고자 추진됐다.

'듀얼케어 부모성장 프로그램'은 집단 부모교육과 찾아가는 개별 부모상담을 병행 운영하는 통합형 프로그램으로, 부모의 심리적 안정과 긍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집단 부모교육은 5월(상반기)과 10월(하반기) 각 1회씩 총 2회 진행되며, 찾아가는 부모상담은 전문 상담사가 가정을 직접 방문해 가구당 총 10회기에 걸쳐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운영되는 찾아가는 부모상담은 외부 활동이 어려운 가정이나 양육 스트레스가 높은 부모



를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부모의 정서적 안정은 물론 부모-자녀 관계 개선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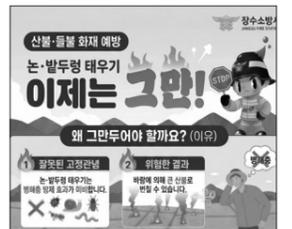
협약에 따라 군산시 드림스타트는 대상 가정 발굴과 사업 운영을 총괄하고, 그린맘심리발달연구소는 전문 상담인력을 통한 부모 상담과 양육 코칭을 제공하게 된다. /군산=김만호 기자

장수소방서, '논·밭두렁 태우기, 이제는 그만'

장수소방서(서장 한동규)가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을 맞아 산불 및 들불 화재 예방을 위해 '논·밭두렁 태우기' 자체를 적극 당부하고 나섰다.

본격 영농철을 앞두고 농사 준비를 위해 관행적으로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농산 부산물 및 쓰레기를 소각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봄바람을 만나 대형 산불로 번질 위험이 커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장수소방서는 산림 및 인접 지역에서의 무분별한 소각 행위를 삼가 줄 것을 당부했다. 주요 실천 사항으로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화기 취급 자제 △비닐, 영농 쓰레기 등은 태우지 말고 수거 처리 △마른 쓰레기 자체 소각 지양 등이다. /장수=곽관호 기자



김제시 진봉면 복지기동대, 정기회의 개최

김제시 진봉면 행정복지센터는 복지기동대(대장 이임찬)가 지난 6일 회의실에서 2026년 첫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기회의는 지역사회 복지 향상에 기여한 우수 복지기동대원과 직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해 대원들을 격려했으며, 복지기동대장을 포함한 새로운 임원진이 선출돼 지역 복지향상을 위해 더 힘차게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

또, 2025년 복지기동대 활동을 공유하며 지난 한 해 동안의 봉사활동을 돌아보고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활동 과정에서 아쉬웠던 부분을 함께 논의하며 2026년에는 더욱 효율적인 봉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60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대표전화 288-9700 ·업무국 FAX 288-9703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645-4113
삼천지사 010-2333-4791
서신지사 272-9417
호지지사 010-6645-9935

중앙지사 010-9088-6874
인후지사 246-6855
송전지사 255-2404
팔복지사 253-6844
군산지사 010-8329-6677
익산지사 859-9923

남원지사 632-3996
김제지사 545-1227
남원지사 632-0985
순창지사 853-0444
부안지사 010-2425-4182
고창지사 563-6939

임실지사 010-9642-2725
진안지사 433-3064
정읍지사 536-3787
정수지사 010-3682-6157
무주지사 010-4172-3800

*구독료 : 월13,000원, 1부 500원 인쇄인 김은주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